



## Analysis of Contributing Factors for the Adult-child Group Discriminant in College Students

Hee-Ryong Park<sup>1</sup>, Myong-Suk Ya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imcheo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Child Welfare, Han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used as an indicator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factors in the adult-child(anxiety, relationships, emotion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of the cluster to determine the classifica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the collective ego factor is appropriate to verify the status of an adult-child characteristics for a college students counseling will help. To this end, a total of 119 college students in Gyeong-buk patients conducted cluster analysis results were divided into two clusters. 5 kinds of ego-status factors that determine the relative influence of each cluster to evaluate the results of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conducted, the one derived discriminant function was derived discriminant fun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articular, the 5 kinds of ego-status factor AC(adapted child), two adult child to determine the best variables to determine which groups were, NP(nurturing parent), CP(controlling parent) was affected by the following. Overall hit rate of the classification groups was 78.2% and hit rate of the cluster-1 was 80.6% and hit ratio of the cluster-2 was 75.4%, a group were correctly classified. Finally, the five ego-states transactional analysis(TA) of the factors that predict the college students adult-child characteristics most useful as a tool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AC was verified.

© 2014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Adult-child, Transactional analysis, Ego-state, Cluste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ARTICLE INFO:** Received 25 November 2013, Revised 8 January 2014, Accepted 14 February 2014.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Hannam University, 133 Ojeong-dong Daedeok-gu Daejeon, 306-791, KOREA.

*E-mail address:* [msyang@hnu.kr](mailto:msyang@hnu.kr)

## 1. 서론

성인아이(adult child)는 어린시절 아이로서 부모나 주 양육자로부터 당연히 경험하고 받아보았어야 할 무조건적인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로 결만 성장한 성인을 가리킨다. Sell(1992)은 성인아이를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하였고[3], Tim Sledge(1992)는 역기능 가정의 산물로서 성인의 문제를 나이에 맞지 않게 조속하게 다루어야 하는 성인화된 아이(adulticide child)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해소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unfinished business)를 아직 처리하고 있는 성인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다[36]. Bradshaw(2004)는 성인아이를 칼 융(Carl Jung)의 원형론을 이용하여 상처 입은 내면아이(inner child)로 보았으며 적응된 자기(adapted self)라고 하였다[11]. Virginia Satir(1991)는 잘못된 자기가치를 가진 문제아로[2], Missildine(1986)는 어린시절 충족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여 상처받을 결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존재하는 내재 과거아로 정의하였고[31], Whitfield(1987)는 성인아이를 거짓된 자아(false self), 상호 의존적 자아(co-dependent self), 진실 되지 못한 자아(unauthentic self), 공적인 자아(public self), 내재적 과거아(Inner self) 등으로 표현하였다[34].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노용찬(1996)은 성인아이란 역기능 가정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성장해 자아를 잃고 마음이 상처를 가진 채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을 가리킨다고 정의했으며[43], 정석환(2001)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성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내면의 자아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어 내부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7]. 또한 박선호

(1999)는 성인아이를 가족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치료받아야 할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역기능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체계가 역기능으로 반응하게 되면 역기능에 따른 희생자가 있게 마련이고 이를 성인아이라 하였고[8], 임석환(2001)은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인격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들로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기본적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내면의 자아는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로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문제들로 고통 받고 있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인격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 정의했다[9]. 이와 같이 성인아이에 대한 학자들마다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된 부분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다른 특징들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성인아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린 시절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는 그들의 진정한 자아가 거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가 아이의 진정한 자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환경에 따라 형성된 자아(ego)의 모습이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것을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성인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아이 특성 모두가 자아와 연결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고, 자아가 이들의 성장과정에 부모로부터 경험되어진 부정적 또는 긍정적 성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ric Berne(1961)은 자아상태를 조작적으로 일관된 행동유형으로서 현상학적으로 감정체계(system of feeling)이고, 실제적으로는 관련된 행동유형을 동기화 시켜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19], 그는 성격이론을 구성하면서 사용한 기본적 단위를 자아상태라고 하였으며, 사람은 서로 구별이 되고 명

확한 행동의 원천이 되는 세 가지 자아상태를 가지고 있다[19]고 하였다. 세 가지 자아상태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실재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사람들의 시간, 장소, 결정, 느낌을 포함한 과거에 일어났던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20]. 자아상태의 발달은 단계에 따라 어린이(child: C), 어버이(parent: P), 어른(adult: A)자아로 발달하게 된다. 자아상태는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아상태는 각각 관찰 가능한 행동적 단서들이다. 한 사람이 P자아상태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부모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 인물들이 했던 행동이나 감정, 사고를 재연하는 것이고, C자아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자주했던 행동과 여기에 수반된 감정 및 경험을 재연하는 것을 말한다[21]. 어떤 사람의 자아상태는 그 사람의 언어, 몸짓, 행동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자신에게도 인식되고 감지된다. 따라서 심리적 에너지가 유동적이지 못하거나 편향이 있을 경우 자아상태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코그램을 통하여 관찰이 가능하다[22]고 하였다. Eric Berne(1964)은 자아상태를 감정 및 사고, 이에 관련된 일련의 행동양식을 종합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3]. 그는 임상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P, A, C 등의 세 가지 자아의 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 분석하였으며, 이중에 어느 하나가 상황에 따라 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17]. 이 세 가지 자아 상태는 징후들이 얼굴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여러 가지 비언어적 행위 또는 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다. Eric Berne(1961)은 P자아상태는 양육적 부모 자아상태(nurturing parent: NP)와 통제적 부모 자아상태(controlling parent: CP)로 구분하였고, NP는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으로부터 열려 주기를 받아 본 경험들에 의해 형성되며, 통제적 부모 자아상태는 아동의 행동

을 사려 깊게 관찰한 결과, 판단하고 지도해 준 경험들이 기억됨으로써 형성된다[19]. P자아상태는 아동들이 점점 자라고 사회화되면 그 아동이 합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령하는 기능을 가진다[19]. A자아상태란 현실의 객관적인 평가를 지향하는 자아 상태로 감정이 아닌 현실에 입각한 사고와 행동을 하며 생각하는 나를 의미한다. A는 아동 자아상태(C)와 부모 자아상태(P)의 영향을 받아서 아동의 사회적 역량이 누적되면서 형성된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 심리적 상태는 자료를 처리하고 외부 세상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필요한 가능성을 계산해 낸다[19]. A자아상태는 관찰의 기능과 외부의 현실에 대한 예측 때문에 비 정열적인 기관, 즉 감정이 결여된 컴퓨터 같은 것에 비교한다. 그 밖에 P자아와 C자아의 활동을 조절하고 객관적으로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C자아상태란 유년기에 고착된 원초적 유물로서의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할 때 발휘되는 자아상태로 느끼는 나를 의미한다[16][24]. Woollams (1974)에 의하면 C자아상태는 인간 개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동적인 충동과 감정들, 그리고 생애초기의 경험으로부터 느끼게 된 감정과 그에 대한 반응양식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25]. 주로 출생 후 5세 무렵에 형성되는데 이때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의미 있는 타인과 관련된 감정적인 반응을 내면화하며 여기에는 긍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경험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생애초기에는 낯설고 서툰 환경 안에서 적응해 나가고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직면하는 불가피한 욕구좌절과 부정적인 경험을 좀 더 경험하게 되며 이 때문에 자기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16][25]. C자아상태는 자유스러운 어린이 자아(free child: FC)와 순응적인 어린이 자아

(adapted child: AC)로 세분화 할 수 있다[16][26]. AC는 연장자나 권위자로부터 관심을 얻고자 하는 자아상태를 말하고, FC는 부모와 연장자의 반응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아상태를 말한다. AC에는 적응적 반응이 많고, FC에는 본능적 충동적 반응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26].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자아상태(P, A, C)는 각 자아들이 서로 혼합되거나 배척되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성인아이 특성 대학생들을 변별하는 판별도구임을 검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성인아이 특성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군집이 의미 있게 변별되는지 살펴보고, 자아상태 요인이 각 군집을 어느 정도 판별해 주는지를 탐색해 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의 잠재적 위험군을 진단하고, 교류분석의 자아상태 요인이 실제적인 대학생들을 돕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인아이 특성을 갖는 대학생들을 수준별로 판별할 수 있는 분별 지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할 것이다. 첫째, 대학생 성인아이 특성(불안감, 인간관계, 감정관리, 책임감)에 따라 의미 있는 집단으로 분류될 것인가? 둘째, 자아상태의 하위요인(CP, NP, A, FC, AC)들이 분류된 대학생 성인아이 집단을 의미 있게 변별할 수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북에 있는 G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총 배포된 150부 중 15부를 제외한 135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답변기재 등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된 16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최종 분석에 적용된 설문지는 총 119부이다.

### 2.2 연구절차

본 조사의 자료 배부 및 회수는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절차는 사전에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한 담당과목 교수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실시 요령에 대한 안내하고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즉석에서 작성하게 하였고, 작성이 완료된 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성인아이 척도

본 연구에서는 성인아이 특성에 따라 판별하기 위해 김홍운(2000)이 개발한 성인아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인아이 판별을 하기 위하여 성인아이 특성을 4가지의 하위요인, 즉 성인아이의 일반적인 특성인 불안감,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특성,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특성, 과대하거나 과소한 책임감으로 구분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에 응답하도록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항목별 신뢰도는 불안감=.90, 인간관계=.90, 감정관리=.87, 책임감=.90이었다.

#### 2.3.2 자아상태 척도

자아상태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이고그램은 Dusay(1997)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개인이 가진 5 가지 자아의 고저를 나타내며, 그 강도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고그램 척도는 한국교류분석협회에서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ECL를 사용하였다. 기능별로 분리된 5개의 각 자아상태 마다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언제나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CP, NP, A, FC, AC 각 자아상태의 점수범위는 10~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자아상태의 심리적 에너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신뢰도는 .7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73, 하위요인들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각각 CP=.66, NP=.68, A=.68, FC=.68, AC=.73이었다.

##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성인아이 특성(불안감, 인간관계, 감정관리, 책임감)에 따라 집단이 분류되는지 확인한 후, 교류분석의 이고그램(자아상태 요인)이 분류된 성인아이 집단 판별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Cronbach’s  $\alpha$ 를 구하였고, 성인아이 하위요인과 자아상태 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의 성인아이 특성과 관련된 변인인 성인아이 특성(불안감, 인간관계, 감정관리, 책임감)의 조합에 따라 몇 개의 군집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단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은 연속변수들의 유사성에 따라 변수 혹은 객체들을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해 내는 방법으로, 어떤 집단으로 구분되는지, 구분된 집단이 어떤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지를 밝히는 탐색적 방법이다

[44]. 1단계에서는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군집의 수를 정하였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다섯 가지 자아상태 요인이 각 군집을 유의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 판별한다면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은 두 개 이상의 집단들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가장 잘 변별해 주는 변인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판별분석과 여러 변인들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소속집단이 불분명한 사례들이 어떤 집단에 소속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언적 판별분석이 있다[45].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가지 자아상태가 대학생 집단의 성인아이 특성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지, 집단 판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자아상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판별함수를 도출하였고 Wilks’  $\lambda$ 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아상태 특성의 하위 요인들과 성인아이 지표 간 상관 및 각 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책임감은 인간관계( $r=.299$ ), 불안감( $r=.196$ ), 감정관리( $r=.215$ )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인간관계는 불안감( $r=.525$ ), 감정관리( $r=.524$ )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

표 1.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n=119)  
Table 1. Correlation of measured variables (n=119)

	책임감	인간관계	불안감	감정관리	CP	A	FC	AC	NP
책임감	1								
인간관계	.299**	1							
불안감	.196*	.525**	1						
감정관리	.215*	.524**	.528**	1					
CP	.231*	.027	.018	.099	1				
A	.203*	-.008	-.092	-.232*	.307**	1			
FC	.094	.182*	.240**	.556**	.294**	-.102	1		
AC	.192*	.672**	.285**	.392**	.043	.156	.262**	1	
NP	.104	-.076	-.037	-.033	.029	.346**	.107	.197*	1
M	3.084	2.213	1.687	2.397	2.582	3.063	2.560	2.647	3.365
SD	1.154	.779	.687	.751	.578	.573	.843	.769	.691

\*p<.05, \*\*p<.01

를 보였으며, 감정관리는 책임감( $r=.215$ ), 불안감( $r=.528$ )에서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대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을수록 인간관계를 원만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과대하거나 과소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성인아이 특성 중 인간관계(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와 자아상태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AC ( $r=.672$ )에서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FC( $r=.182$ )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감정관리와는 FC( $r=.556$ )와 강한 상관을 보였으며, AC ( $r=.392$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감과는 AC( $r=.285$ ), FC( $r=.240$ )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책임감과의 관계에서는 CP( $r=.231$ ), A( $r=.203$ ), AC( $r=.192$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3.2 가설의 검증 결과

#### 3.2.1 군집분석 결과

대학생의 성인아이 특성과 관련된 변인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의미 있게 분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이어 실시하는 방식이다. 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용할 때는 이탈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비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용할 때는 군집의 수를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이 2의 군집에

배정되었고, 군집1은 62명(52.1%), 군집2는 57명(47.9%)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나타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군집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성인아이 특성 요인들이 군집1보다 군집2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들의 평균값이 군집1보다 군집2에서 불안감 6.67, 인간관계 10.82, 감정관리 9.49, 책임감 7.52 높은 차이를 보였으며, 두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인아이 모든 요인에서 <표 2>와 같이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 $p<.001$ ).

표 2. 성인아이 군집별 중심점  
Table 2. Seed point of clusters in adult child group

	군집 1 (n=62)		군집 2 (n=57)		t
	중심점 (M)	SD	중심점 (M)	SD	
불안감	10.66	(2.655)	17.33	(4.790)	-9.287***
인간관계	16.55	(3.805)	27.37	(5.473)	-12.419***
감정관리	15.95	(3.752)	25.44	(4.383)	-12.630***
책임감	14.66	(3.464)	22.18	(4.252)	-10.515***

\*\*\* $p<.001$

이를 그림도표로 나타낸 <그림 1>에서 군집2는 불안감, 인간관계, 감정관리, 책임감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이었고, 군집1은 불안감, 인간관계, 감정관리, 책임감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성인아이 특성이 높은 집단은 군집2로 분류되었다. 특히 <그림 1>에서 나타난 것처럼 군집2는 군집1보다 성인아이 특성에서 불안감이 높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감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성인아이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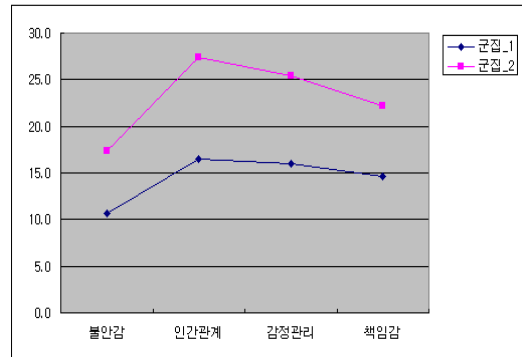


그림 1. 성인아이 군집변인의 프로파일

Fig 1. Profile of adult child cluster variables

### 3.2.2 판별분석 결과

판별분석결과 자아상태 특성이 분류된 2개의 군집을 판별하는 유의한 설명 변수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선택방식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상태의 BOX's M의 값은 9.681 ( $F=1.569$ ,  $df_1=6$ ,  $df_2=97271.056$ ,  $p=.152$ ), 즉  $p>.05$ 이므로 변량-공변량 행렬이 동질적임이 확인되었다.

단계적 판별분석은 독립변인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거나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판별모형을 가설적으로 만들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판별분석 결과 A와 FC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인 모두가 판별식에 AC, NP, CP 순으로 투입되었다. 독립변인의 수가 추가됨에 따라 단계별 Wilks'  $\lambda$ 의 값은 감소하고 있어 판별의 기능이 더욱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형의 예측력을 나타내는  $\eta^2$ 의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AC요인만 포함되었을 때 예측력은 2.1%로 낮았으나, 단계별로 NP, CP요인이 추가되면서 29.6%, 33.3%로 모형의 예측력이 처음 단계에 비해 27.5%, 31.2% 정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AC요인이 집단을 판별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NP, CP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군집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 결과  
Table 3. Test result for homogeneity of cluster average

요인	단계	Wilks' λ	n <sup>2</sup>
AC	1	.979	.021***
NP	2	.704	.296***
CP	3	.667	.333***

\*\*\*p<.001

각 집단 특성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  $D1 = -0.839(CP) - 1.119(NP) + 2.390(AC) - 0.882$ 로 1개의 함수로 도출되었으며, <표 4>와 같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ilks' λ에 의하면 유의수준 (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함수임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판별함수의 고유값은 .576으로 집단 내 분산에 대한 집단간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값이 크면 클수록 도출된 판별함수가 집단을 구분하기에 좋은 판별함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정준 판별함수 검정결과  
Table 4.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test results

판별함수	고유값	설명분산	Rc	(Rc <sup>2</sup> )	Wilks' λ	χ <sup>2</sup>
D1	.576	100%	.605	(.366)	.635	52.535***

\*\*\*p<.001

판별함수와 집단간의 상관을 의미하는 Rc는 .605이고, 정준상관계수의 제곱값인 Rc<sup>2</sup>는 판별함수와 집단간에 공유되는 분산의 비율로 판별함수가 집단 구분에 36.6%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5>는 판별함수 D1에 의한 집단 중심

값은 각 집단을 잘 구별해 주고 있다. <표 6>은 판별함수와 각 독립변인과의 상관계수를 보면 특히 AC와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3가지 자아상태 중 AC가 집단을 판별하는데 가장 좋은 판별 변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판별함수의 군집 중심값  
Table 5. Center value of cluster for discriminant function

집단유형	판별 함수별 집단 중심값
	D1
군집 1	-.722
군집 2	.785

AC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판별함수에의 적재값이 0.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을 판별하는데 판별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자아상태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Table 6. The results of discriminant analysis

요인	판별 함수와 독립변인과의 상관
	D1
AC	.728
NP	-.169
CP	-.135

또한 각 집단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군집1의 경우 80.6%, 군집2는 75.4%의 집단이 정확하게 분류되어 전체적으로 78.2%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성인아이의 특성을 갖는 대학생들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써 대학생들의 성인아이 특성을 예측하여 상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군집에 대한 Fisher's 선형판별함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군집 1: } & 7.963(\text{CP})+8.249(\text{NP})+4.045(\text{AC})-31.222 \\ \text{군집 2: } & 6.699(\text{CP})+6.563(\text{NP})+7.644(\text{AC})-32.599 \end{aligned}$$

표 7. 집단 분류 결과표  
Table 7. Group classification results table

실제집단	예측집단		
	군집1 (%)	군집2 (%)	전체 (%)
빈도(%)			
1	50 (80.6)	12 (19.4)	62 (100)
2	14 (24.6)	43 (75.4)	57 (100)

주. 전체의 정확한 분류비율 78.2 %

이러한 판별함수는 새로운 대학생의 자아상태 (NP, CP, AC) 점수 값들을 판별함수에 삽입하여 큰 값으로 나타나는 군집, 즉 성인아이 특성에 분류되도록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 4. 논의

본 연구는 성인아이 특성을 갖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류분석의 자아상태가 성인아이 분류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성인아이 특성 하위요인인 책임감, 인간관계, 불안감, 감정관리에 따른 성인아이 집단인 군집1과 군집2의 특성이 탐색되었으며, 교류분석의 자아상태 하위요인들(CP, NP, A, FC, AC)이 분류된 집단인 군집1과 군집2를 변별해 주는 주요 요인으로 판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성인아이 특성과 자아상태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단계 군집분석 결과, 분류된 성인아이 집단 군집1과 군집2에 따라서 성인아이 특성의 응답

분포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전체 사례를 일괄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지 못한 성인아이 특성 수준을 군집1과 군집2와 같은 집단 특성으로 보여주었다. 성인아이 특성집단의 사례들의 응답 분포는 군집1보다 군집2에서 불안감에서 62.6% 높게 나타나 불안감이 높고, 인간관계에서 65.4% 높게 나타나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나타내고, 감정관리에서 59.5% 높게 나타나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 책임감에서 51.3% 높게 나타나 책임감이 부족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군집2가 성인아이 특성이 높은 집단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의 특성을 보면 전체 인원 가운데 군집1이 52.1%, 군집2가 47.8% 차지하였다. 이는 분류된 집단이 대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발달적 과업수행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rikson(1968)의 연구에 의하면 청년 전기의 중요한 발달적 위기를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란의 발달적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34]. 이러한 발달적 단계에 위치한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발달단계에 있다는 가정 하에 현재 발달과업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때, 군집1은 성인아이 특성이 낮은 집단으로 비교적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역할 혼란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성인아이 특성이 높은 군집2에 해당하는 47.8%의 대학생들이 정체성에 대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 성인아이 집단 판별의 기여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2단계 군집분석의 탐색된 결과를 기초로 집단을 변별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 결과 교류분석의 자아상태의 요인들이 성인아이 집단을 두개의 군집인 군집1과 군집2로 유의미하게 변별하였다(Wilk's  $\lambda=0.635, p<.001$ ). 대학생 성인아이 집단을 변별하는데 변별력이 가장 높은 자아상태 요인인 AC, 즉 대학생 성인아이 변

별 요인으로 AC가 집단을 변별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성인아이 특성이 높을수록 AC도 높게 나타나는 정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는데, AC의 자아상태를 갖는 대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부모의 기대에 맞도록 항상 주의에 마음을 쓰며, 자유로운 감정을 억제하는 착한아이[17][19]의 특성을 갖으며, 주체성이 결여된 채 주위에 영합하는 것으로 본래의 자신을 완전히 살릴 수 없고, 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욕구불만이 생겨 열등감을 품거나 현실을 도피하거나 한다. AC상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느끼지 못하고 겉으로만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16][17][29], 모든 것을 의존하여 자기 자신을 틀어박히기로 하는 성인아이 특성과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류분석의 이고그램이 성인아이를 변별하는 도구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성인아이 특성을 변별하기 위해 이고그램을 활용한 판별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성인아이 집단을 변별하는데 변수들의 표면적인 평균 점수만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사례 개별적인 특성들이 생략되는 오류를 확인한 결과라 하겠고, 박성희(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사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인간 행동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41], 이러한 연구방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사례들의 군집 특성을 탐색 수준이 아니라 판별분석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성인아이 특성의 행동을 할 때 심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동기의 과정에서 AC가 성인아이 특성 행동의 동기에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상담자들이 표면적으로 높거나 낮은 성인아이

특성 수준에 주목하기 보다는 대학생들이나 내담자들의 내면에서 얼마나 AC의 동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지를 변별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상태를 탐색하고 문제를 확인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상담의 주요 과제라 할 때, AC에 근거한 동기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적, 상담적 지표가 된다[38].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분석에서 대표값인 평균값의 상승을 토대로 AC가 높을수록 성인아이 특성 수준이 높다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상담에서 대학생들의 성인아이 변별 지표로서 교류분석의 이고그램을 활용한 자아상태를 보고자 하는 경우에, 자아상태의 내적 동기 유형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아이 특성의 실제적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나 학년 혹은 지역별 통계를 두지 않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환경적 또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판별분석을 위한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방법상 가장 큰 제한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가 매우 양호하였고, 판별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구 본래의 목적에 보다 더 부합하는 판별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인아이 특성 수준의 양 극단에 해당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여 다양한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내적동기보다는 표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성인아이 특성을 판단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성인아이 특성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결과 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성인아이 특성 판별과정에서 가족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에서처럼, 자아상태와 결부된 성인아이 특성을 탐색할 때 가족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성인아이 변별에 대한 문화적인 타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대학생 상담의 성과 연구에서 성인아이 특성 수준을 살펴보고자 할 때 자아상태의 질적인 과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평균은 대상들이 평균 수준으로 행동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평균 점수의 상승 이면에 중심화 경향으로 사라지는 질적인 특성을 감별하고 이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보다 더 학생상담 실체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J.-H. Ryu, *Healing of an adult child in Pastoral Counseling*, Master Dissertation, Mokwon University of Korea, Daejeon, 2001.
- [2] Virginia Satir. *Making people*, Seong-min-sun, Song-jun-gong translation, Hongikjae, 1991.
- [3] Charlse Sell, *Still not heal hurt*, D.-S. Jeong, M.-H. Choi, translation, Duranno 1992.
- [4] Jim, Conway. *Adult Children of Legal or Emotional Divorce*, Downers Grove II. IVP, 63. 1990.
- [5] David Stoops & James Masteller, *Forgive your parents, forgive me*, S.-J. Jang, translation, Jeju-jundodan, 2001.
- [6] J.-H. Lee, *Adult child healing seminars*, Kookmin Ilbo of Korea, Seoul, 2000.
- [7] S.-H. Jang, *Eat drink introspective violent husband*, Kookmin Ilbo of Korea, Seoul, 2001.
- [8] S.-H. Park, *This dysfunctional family systems theory, family characteristics and adult children heal*, Master Dissertation,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of Korea, Seoul, 1999.
- [9] S.-H. Lim, *Adult-Child and personality Disorder*, Master Dissertation,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1.
- [10] David E. Carlson, *Self-Esteem*, Lee-Gwanjik translation, Duranno press of Korea, Seoul, 1997.
- [11] John Bradshaw, *The healing of wounded inner child*, O-eun-jae translation, Hakjisa press of Korea, Seoul, 2004.
- [12] Tim Sledge, *Family healing mind healing*, D.-S. Jeong, translation, Jordan press of Korea, Seoul, 2004.
- [13] S.-T. Joo, S.-H. Kim, *I'm crying my heart*, Soon press of Korea, Seoul, 2004.
- [14] Joan Lloyd Gusest, *Self-esteem*, S.-Y. Byeun, translation, Korea Student Christian, 1995.
- [15] H.-J. Choe, *The healing of stomach anger*, Kyujang Munhwasa, 1995.
- [16] J.-E. Heo,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state, life posi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couples: Based on the TA theory*, Master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of Korea, Seoul, 2010.
- [17] M.-H. Kim, *Ego state college and care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ster Dissertation, Changwon University of Korea, Changwon, 2010.
- [18] Berne, E., *Games people play-The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 NY: Grove press, 1964.
- [19] Berne E., *Transactional analysis in*

- psychotherapy*, New York: Ballantine Books Press. 1961.
- [20] Harris, T. A., *I'm ok-You're ok*, NY:Avon Books, 1973.
- [21] Ian Sewart, Vann Joiness, *Transactional analysis of modern*, Other jeseokbong translation, Hakjisa, 2010.
- [22] J.-H.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gogram sScale of transactional analysis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of Korea, Kyungbuk, 2009.
- [23] N.-Y. Kim, *Salesperson's core competencies and self-judgment and self-state relationship*,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9.
- [24] M.-L. Park, *Members of the self-organization factors and organization effectiveness relationship status*,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1995.
- [25] A.-S. Chung, *A study on transactional analysis program application influences on forming the self-state and the self-esteem of the low income child: Focus on stroke theory"*, Master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8.
- [26] Y.-Y. Kim, *The relationship of shown ego state and life attitudes,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 in egogram*,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3.
- [27] J.-H. Woo, *Transactional Analysis(TA) of the first step*, Jeongamseowon, 1995.
- [28] Pope, Kenneth. S. Ethical dilemmas encountered by member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 national survey*. American Psychologist, Vol. 47 No. 3, pp. 397-411, 1992.
- [29] I.-J. Rha, *Comparative analysis on family cohesion according to the diagnosis of the type of self of the christian youth*, Master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7.
- [30] D.-J. Seo, *Development of marital satisfaction enhancement program for christian middle-aged couples through TA and analysis of its effects*, Doctor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of Korea, Deajeon, 2005.
- [31] Missildine. W. H.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Pocket Books, 1986.
- [32] D.-S. Joung. *Family healing, heart healing*. Jordan Hakjisa press of Korea, Seoul, 1996.
- [33] Sledge. Tim. *The 12 steps for adult children*, 1988.
- [34] Whitfield, Charles L. *Healing the child within: discovery and recovery for adult children of dysfunctional families*. Health Communications, 1987.
- [35] Stooper. D. & Masteller. *Forgiving the Parents, forgiving me*. Cali.: Focus on the family, 1985.
- [36] Sledge & Tim. *Making peace with your past*, 1996.
- [37] Whitfield & Charles L. *Healing The Child Within*, 1995.
- [38] Deci, E. L. & Ryan, R. M. *Self-determination theory of human motivation, development, and health*, Canadian Psychology. Vol. 49, No. 3, pp, 182-185, 2008.
- [39] Eri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 [40] H.-W. Go, G.-H. Kim, *Korea and matur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making statu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9, No. 1, pp. 149-166, 2008.
- [41] S.-H. Park, *Counseling Rresearch methodology*. Hakjisa press of Korea, Seoul, 2007.
- [42] Dusay, J. M. *Ego Gram: How I see you and you see Me*. Grove Press, 1977.
- [43] Y.-C. No, *12 steps for adult children of healing: healing adult children who grew up in a dysfunctional home guide*. Gulsam press of Korea, Seoul, 1996.
- [44] Kayri, M. *Two-step clustering analysis in*

research: a case study.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8, pp. 89-99, 2007.

[45] H.-J. Park, *Understanding of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Hakyeeunsa press of Korea, Seoul, 2005.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한남대학교의 2013학년도 교내연구비가 지원되었음.

---

## 대학생 성인아이 집단 판별 기여요인 분석

박희룡<sup>1</sup>, 양명숙<sup>2</sup>

<sup>1</sup> 김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sup>2</sup>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성인아이 요인(불안감, 인간관계, 감정관리, 책임감)의 군집분류와 분류된 집단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자아상태 요인이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성인아이 특성을 갖는 대학생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북소재 대학생 총 119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5가지 자아상태 요인이 각 군집을 판별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개의 판별함수가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판별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특히, 5가지 자아상태 요인 중 AC(순응적 자아)가 성인아이 집단을 판별하는데 가장 좋은 판별 변인이었고, NP(양육적 자아), CP(통제적 자아)가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 분류의 적중률(hit ratio)은 78.2%이었고, 군집1에 대한 적중률은 80.6%, 군집2에 대한 적중률은 75.4%로 집단을 정확히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류분석의 5가지 자아상태 요인 중 대학생의 성인아이 특성을 예측하고 판별하는 도구로서 가장 유용한 요인이 AC임을 검증하였다.

---



**Hee Ryong Park** receive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t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in 1999. He received the M.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at the Hannam University in 2009. He was completed doctoral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at Hannam University in 2013. He has been a professor in Gimcheon University from 1997 to now. 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ince 2010. His research interests are counseling psychology, etc.. He is a regular membership of the KKITs.

*E-mail address:* phrcont99@hanmail.net



**Myong Suk Yang** receive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Heinrich-Heine Duesseldorf University in Germany 1990. She has been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Child Welfare at Hannam University from 1992 to now. Her research interests are Process Oriented Psychology and Process Work for Counseling.

*E-mail address:* msyang@hnu.kr